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금융보험학과	이름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낭트
파견대학	Audencia business school	파견기간	1년
귀국여부	귀국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Audencia는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서쪽인 낭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GV 기차로 약 2시간 소요가 되며 프랑스 땅이 매우 넓기 때문에 위치상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또 오덴시아는 낭트에 3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경영대 소속인 Main Campus, 무역을 더 중심으로 배우는 City Campus, 과학이나 디자인을 배우는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전 메인 캠퍼스를 1년간 다녔고, 저희 학교에 교환학생의 비율이 많아 학교 자체에서 Audencia IC TEAM이라는 학생팀을 꾸려 국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동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는 행사가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수업	<p>저는 1 년 동안 STRATEGY&amp;ENTREPRENEURSHIP, BUSINESS SIMULATION, MANAGING AND LEADING A TEAM(HRM), DIGITAL MARKETING &amp; SOCIAL NETWORK, MARKETING SECTORIAL,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ENTREPRENEURIAL PRJECT AND BUSINESS PLAN, SPORTS, FRENCH 총 10 과목을 들었습니다. 평균 한 학기에 5 과목을 들었으며 그렇게 빡빡한 스케줄은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듣고싶은 과목을 고르면 스케줄이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듣진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4 시간씩 수업을 듣기 때문에 방과 후 자기만의 여가시간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PPT 로 수업진행을 하기 때문에 책값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보통 그날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들께서 PPT 파일을 다 업로드 해주시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은 회계 쪽이 아닌 경영이나 마케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팀플이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팀플을 하면서 다양한 인터네셔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를 기회라 여기세요 ☺</p>
프로그램 운영	<p>오덴시아는 한 클래스에 보통 30명이 들습니다. 그 중 10~13명 정도가 FRENCH이고 나머지는 국제학생들이 수업을 들습니다. 그만큼 교환학생 비율이 커서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많이 열어요. 교환학생 비율 중에서도 유럽권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전통 축제를 학교에서 조금이나마 기분을 낼 수있습니다! 전 독일의 Oktoberfest, 아일랜드의 St. Patrick, 중국의 New year, 카니발 등등 많은 파티를 즐겼으며 국제 친구들과 보르도여행, 몽생미셸여행도 다녀왔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프랑스는 2월부터 10월까지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 대부분의 유럽전역 전체가 다 좋아요! 여행하시기에 좋습니다. 11월부터 비나 구름이 대부분이지만 한 겨울에도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그래서 눈도 거의 내리지 않아요. 여행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낭트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스페인, 포르투갈 정말 저렴한 표가 많으니 학기 중에도 많이 떠나시길 바랍니다!
안전	낭트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만큼 한적하고 지내기 좋았습니다. 낭트에 아예 정착해서 사는 한국인이 평균 80명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전 혼자서 밤 11시 이후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밤 늦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파티를 다녀와도 저랑 같은 레지던스에 사는 친구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 그 부분만 유의해주시면 1년간 사는데 위험하다고 느낄 요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	전반적으로 다 만족했지만 가장 불편했던 것을 꼽아보자면 전 숙소였어요. 오덴시아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대신 학교 주변에 많은 사설기숙사 CROUS를 추천해주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교환학생 비율이 많아 전 광탈했습니다.ㅠㅠ 오덴시아 학교를 네이버에 치기만해도 전 학기에 다녀온 친구들이 블로그에 방부터 수업내용까지 다양한 게시물이 나와 그걸 참고했습니다. <b>낭트 한인 커뮤니티 카페</b> 에 가입해서 카페 주인장에게 연락을 드렸고 현지에 가서 해야 할 행정처리 (휴대폰 개통, 은행계좌 열기, EDF전기, CAF주택보조금신청, OFFI비자)비용까지 총 25만원을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 크로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설로 집을 구해 혼자 1년간 자취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CROUS는 월세가 자취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가 도심에서 트램으로 20분 떨어져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행사가 도심 Commerce와 ill de nantes 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나고 집을 갈 때도 시간이 걸리고, 수업이 하루 종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도 도심인데 학교 주변에서 사는 친구들은 한 번 집에서 나오는 것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드낭트 도심 바로 밑 섬에서 자취를 했는데 집 앞에 학교가는 2호선과 3호선 트램도 다녀 교통도 위치도 너무 좋았습니다!

	<p>그리고 자취를 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습니다!</p> <p>왜냐면 프랑스는 caf라고 주택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p> <p>방값을 전 3개월에 한번씩 내고 매 달 보조금 170유로를 받았습니다!</p> <p>월 방값은 430유로..?이었던 것 같은데 잘 계산해보면 외국에서 자취하는 비용치고는 저렴하게 했습니다.ㅎㅎ 이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한 정보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p> <p>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프랑스의 외식비용은 정말 비싸지만,, 까르푸나 리들, 볼리유 등의 마켓 물품들은 한국에서 장보는 비용보다 훨 저렴해요. 전 프랑스 올 때 미니 1인 밥솥을 가져갔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낭트에 규모가 큰 아시아마켓이 두 곳이나 있어서 쌀이나 고추장, 간장 거의 다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다만 소주는 5유로,, 한 7천원..?했던 것 같습니다.</p> <p>학식은 학교 안에 있는게 아니라 FACULTY역인 한 정거장 전에 위치하고 있고 보통 5유로 미만으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맛을 중요시 하는 분들은 그냥 학교 앞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먹거나 푸드트럭을 이용하세요 ☺</p> <p>저는 주로 집에서 밥을 해결하고 수업이 끝나고 팀플을 하기 전 학교 안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걸 사먹고 학식은 많이 이용을 안했어요ㅠㅜ 맛이 없어서요....ㅏ</p>
교통	<p>낭트의 메인 교통수단은 트램입니다. 크게 십자가 모양으로 뻗어있고 그 가운데에 중심인 꼬맥스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전 집이 일드낭트, 섬 지역에서 살았고 섬은 트램 2와 3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는데 환승을 해야하는 불편은 없었습니다. 섬에서 학교까지는 25분에서 30분이 걸려 프랑스에서 통학을 했지만 그다지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p> <p>교통카드도 전 1년 권을 이용해서 한 달에 29유로? 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p>갈 때 아시아나 약 90만원</p> <p>올 때 LOTS 약 50만원</p>	<p>편도로 두 번 끊었습니다.</p> <p>LOTS는 폴란드 저가항공입니다.</p>

Fees	없음	
보험료	학교에서 1년 보험료를 전체 학생에게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20만원인지 30만원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ㅠ	
숙소	260유로 + 전기세(평균20?30유로?)	매 달 430유로- CAF 170유로
식비		외식은 보통 한끼 15유로부터 있고 요리를 해먹으면 1주일에 15유로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매 달 29유로	
책값	없음	
여행		1년간 계시면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 기회를 다 잡으시면 여행경비로 꽤 돈을 쓰셔야 할거예요.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프랑스는 학생비자를 따는 것부터 절차가 꽤 있습니다. 복잡하진 않지만 까다로운 구석이 꽤 있습니다. 정말 여유를 가지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캠퍼스 프랑스 안에 있는 컴퓨터로 프랑스 대사관 가는 예약을 잡을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많으면 한 달 뒤로 약속이 잡힐 만큼 오래 걸리니 미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비자 때문에 비행기를 미뤄서 정말 비싸게 프랑스에 왔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프랑스에 도착해서 체류증 OFFI를 받고 낭트에 있는 대사관을 또 가야 합니다.

저랑 같이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애들은 꽤 수월하게 한국에서 처리했었는데 유독! 프랑스의 행정절차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꼭!!!다시 한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인용 전기밥솥과 1인 전기장판 정말 유용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첫 번째 학기엔 열심히 즐기시고 2번째 학기엔 토익책 몇 권 가져가셔서 따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1년간 영어권이 아닌 곳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 과연 내 영어가 많이 늘 수 있을까, 돈만 버리고 큰 수확이 없이 돌아오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행히 외국생활은 잘 맞았고 친구들이 좋았던 저는 부족한 실력으로도 계속 뛰어 들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자신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미국을 가면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과 더 많이 사귄다 수 있어 자신의 영어를 더 짜임새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산다고 해서 저절로 영어실력이 향상되진 않습니다.

유럽을 간다고 해서 (영국이 아닌 이상)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에 가도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자신이 얼마나 인터네셔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있을지 이 고민을 해주세요! 다들 영어가 세컨랭귀지여서 조금 문장구조가 틀려도 이해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 말하는 걸 더 자세히 들으면서 조금씩 제 문장을 고쳐나갔어요.

또 낭트에는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자면 1주일간 열심히 영어를 사용했고, 나름대로 팀플을 하면서 고충도 많았습니다. 제 주장을 내뱉고 친구들을 설득하는게요. 모든 애들이 저와 생각이 같지 않고, 문화권도 달라 현실 타격, 현타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매 주 전 교회에 나가서 그때만큼은 한국말로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다음 한 주는 더 영어가 트였으면 좋겠고 팀플을 하면서도 더 열심히 말해보자 항상 이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나네요.

1년간 잘 지내면서 영어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지만 전 만족해요. 영어 이외에도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패턴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또 내가 살고 있는 프랑스와는 어떤지 많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AUDENCIA BUSINESS SCHOOL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카톡 아이디 남깁니다. zieun9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친구랑 에펠탑 앞 잔디밭에서



오덴시아 파티에서



니스 카니발에서



큰맘먹고 한 외식





일본 친구들과 잔디밭 점심



홈파티!



이탈리아 피사에서,



에펠탑과!



제일 친한 친구 오펔리와!



홈파티,,,,,,이렇게 먹어두 한 사람당 10유로..?





홈파티2



낭트투어 한 날!